

# 1990年度 原子力界의 重要動向

“1990년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原子力界가 페르시아만사태이후 국제적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되는 중요한 한해였다. 더우기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깨끗한 에너지源으로써 原子力 추진의 불가피성이 浮刻되었고, 각종기관에서는 大衆理解(PA)에 관한 努力이 크게 增加되었다. 그러나 11월달의 安眠島에서의 핵폐기물처분장 건설 대규모 반대시위는 原子力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에는 소련과 국교 정상화 후 원자력을 비롯한 첨단분야의 상호 교환협정은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 다음은 지난 1990년도 1년동안 국내외 원자력계에서 일어났던 주요사건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 <1월>

### [국내]

○파기처·한전, 핵폐기물저장시설입지 남해 및 서해안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핵폐기물 관리방침 수정(15일)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로 개칭(24일)

○울진원전2호기 재가동, 설계결함에 의한 고압터빈의 고정날개 및 저압터빈의 회전날개 손상이 원인(29일)

### [해외]

○미국 LIMERICK 원전2호기 상업운전개시(8일)

○현재 운전되고 있는 세계의 원자력발전소는 434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18일)

○80% 정도의 미국 국민, 원자력발전의 중요성 인식, 미국에너지개발협의회(USCEA)에서 여론조사 실시(26일)

○미국 '91회계년도 예산안에 에너지관련분야 예산 175억달러 책정(29일)

### [국내]

○원전산업 분야, 과학기술 외교의 다양화 위해 유럽국가와 과학기술협정 추진할 계획(1일)

○국내 원전 건설기술 이란에 수출, 한국전력기술(주) 이란 부세르 원전건설에 기술제공 검토(7일)

○국내 핵연료 공급, 소련·중국 등 공산권 지역으로 다변화 건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연료의 안정적, 경제적 공급방안 연구」보고서에서(8일)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안전센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독립(15일)

○국산 경수로형 원전 핵연료 52다발 고리원전2호기에 최초 장전, 핵연료 공급 자립시대 맞아(17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2일)

○울진원전1·2호기(95만kW급) 준공, 원전 총설비는 국내 전체 발전시설용량중 36.3% 차지(27일)

### [해외]

○프랑스 DAMPIERRE 원전 S/G교환작업 개시(1일)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저준위폐기물 수출입규제 공표(7일)

## <2월>

-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COMANCHE PEAK 원전1호기 저출력운전 허가(8일)
- 동·서 양 독일 전력회사, 합병회사 설립에 합의(12일)
- 파키스탄 원자력발전소 수입, 프랑스와 합의(21일)
- 북한 영변에 원전 및 핵연료 재처리 농축 시설 건설확인(9일)

<3월>

[국내]

- 소련으로부터 '90~'99년까지 국내원전 핵연료 연간소요량의 약 27%(40톤)규모 수입하기로, 북방경제 정책실무위원회에서 결정(5일)
- 한·일간 원전 비상사태 대비 조기통보 및 긴급지원 위한 핫라인 설치기로 합의, 제1회 아시아원자력협력회의에서(12일)

[해외]

-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SEABROOK 원전 저출력 운전허가(1일)
- 제 7 차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PBNC)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막(5일)
- 미국 TMI원전1호기에서 미량의 방사능 누출(6일)
- 중국 에너지장관, 소련으로부터의 원자력발전소 관련분야 수입을 교섭중이라고 표명(14일)
- 미국 TMI원전2호기의 노심에서 샘플채취 종료(20일)
- 캐나다 에너지장관, 원자력 활성화정책 발표(30일)

<4월>

[국내]

- 원전 인근지역주민 및 직원대상 역학조사 착수(3일)
- 한국원자력연구소, 爐外실증시험시설가동, 핵연료의 안전성·특성에 관한 실험가능케 됨(3일)

- 제5회 한국원산/학회 연차대회, 「차세대 원자력개발과 국제협력」 주제로 개최(17~19일)
- 울진원전3·4호기 원자로 등 주기기 제작 및 설계부분, 한국중공업(주)에 발주(24일)

[해외]

-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제23차 연차대회 일본 동경에서 개최(9~11일)
- 일본 柏崎刈羽원전5호기 운전개시, 일본의 원전 발전량 3,000만kW시대에 돌입(10일)
-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COMANCHE PEAK 원전1호기 저출력운전 인가(16일)
- 영국원자력시설검사국, 원전 2기 수명연장을 결정(23일)
- 중국과 소련, 원자력발전소 공동건설에 관해 각서(23일)

<5월>

[국내]

- 소련산 농축우라늄 도입계약 체결, '99년까지 390톤 규모(9일)
- 한국·프랑스간 차세대 고속증식로 연구 등 원자력분야 및 기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협력에 합의(11일)
- 한·일간 원자력 협력합의각서 서명 및 한·일 원자력협의회 구성·운영에 합의(24일)

[해외]

- 중국 廣東원전2호기 격납용기 밀폐작업 종료(4일)
- 일본 원연, JPDR 원자로 압력용기 해체작업 착수(9일)
- 영국원자력공사, 중수로원형로 폐쇄를 공표(10일)
- IAEA와 OECD/NEA, 국제원자력사고척도의 시험적 운용을 개시(18일)
- 중국 북경에서 우라늄자원회의 개최(21일)
- 핀란드 원전 2차계통 파이프 파손(28일)
- 미국 SEABROOK 원전1호기 상업운전개시(29일)

<6월>

[국내]

○사용후핵연료 특수 수송용기 개발, 핵연료 다발을 수송가능한 안전장비, 한국중공업에서 제작(26일)

○제6차 한·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 (19~22일)

[해외]

○제1회 소련원자력학회 대회 개막(26일)

○일본·불란서 新원자력협력협정, 일본국회에서 가결(26일)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극저준위폐기물 규제면제에 대한 정책 표명(27일)

<7월>

[국내]

○금성산전연구소, 한전 기술연구원과 원전 유지·보수용 로보트 공동개발계약 체결(2일)

○동자부 및 한전 “원자력백서”발간, 국내외 원전관련 정보 수록(5일)

○원자력위원회, 울진원전3·4호기 건설계획 의결, '92년 착공 '98 및 '99년에 준공예정(19일)

○제4회 중·고교 과학교사 워크숍 개최, 서울중등과학교육연구회·한국원산 공동주최(25~27일)

[해외]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원전 수명연장 규칙 공표(17일)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원전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감소 보고(18일)

○일본 泊원전 2호기 초임계 도달(25일)

○영국하원특별위원회, FBR개발에 철회를 권고(25일)

<8월>

[국내]

○원전 관련소설 “꺼지지 않는 불꽃” 출간(2일)

○일일 최대 소비전력량 1,700만kW 돌파(9일)

○한·소 양국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에 합의(12일)

○대단위 밀집지역의 열원으로 원전을 이용 지역난방로 개발키로, '97년부터 상용화, 과기처 “원자로기술개발계획”에서(20일)

○방사선 피폭환자 국내 첫 사망, 비파괴검사업체 소속, 공사현장 근로자 과다 방사선 피폭이 원인 가능성(30일)

○과기처, 산업체·병원·연구 및 교육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RI폐기물 종합관리 착수(30일)

[해외]

○원폭·수폭금지대회, 廣島에서 개막(6~9일)

○일본원산, 소련과 원자력 안전협력에 각서 조인(28일)

○서독 최대의 핵융합장치 운전개시(2일)

○미국에너지협의회, 원전이 석유수입삭감에 공헌하였음을 보고(15일)

○파키스탄과 중국, 원자력 평화이용에 대해 협의(19일)

<9월>

[국내]

○제3차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영심의위, '91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6백85억원 결정(1일)

○과기처, 2030년까지 1백만kW급 원전 50基 건설 및 한국형 원자료를 개발할 계획, “원자력장기발전 종합계획”에서(3일)

○월성원전, 운전실적면에서 99.1%로 세계2위 차지(11일)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단을 부설기구로 발족(10일)

○폴란드 원전 건설사업에 한국 참여 검토(26일)

○원전 건설기술자립도 작년말 현재 77%, 동자부 “원전기술자립 계획평가”에서(28일)

[해외]

○일본·소련 양국, 체르노빌 원전사고구제 협력합의(6일)

○제3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17일)

○영국 에너지장관, HINKLEY POINT-C 원전계획을 인가(6일)

○중국 열병합원자로 건설을 공표(18일)

○OECD가맹국,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방어에 대한 협력에 합의(20일)

○스위스, 신규 원전건설 10년간 동결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23일)

<10월>

[국내]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원산 공동주최 “원자력에 대한 시민토론회” 개최(17일)

○제12회 한일원자력산업세미나,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란 주제로 일본 동경에서 개최(23~26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제2연구소 현판식 가져(30일)

[해외]

○중국·프랑스, 원전 안전협력강화에 합의(3일)

○소련·독일, 원자력발전협력강화에 합의(11일)

○영국노동당, 원전의 신규건설중지를 결의(15일)

○중국, 방사화분석회의 개막(16일)

○중국, EC와 안전관리자 양성코스 실시(29일)

<11월>

[국내]

○한일협력위원회 개최, 원전안전긴급통신망 설치방안 및 원자력기술 공동연구 협력키로(8~9일)

○과기처,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키로(2일)

○한국 원전지역주민 일본 원전관련기관 시찰(6~10일)

○안면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반대시위, 건설계획 전면철회 요구(3~9일)

○과기처, 방사능재해대책법 제정추진(6일)

○안면도 핵폐기물처분장 설치계획 보류(과기처)(9일)

○한국과학기술원, 원전1차계통 고장진단 시스템 개발(13일)

○고리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설치공사 착공(12일)

○한일간 원전사고 발생시 안전조기연락망 내년초 설치운영키로, 제15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26일)

[해외]

○일본 福島第二원전3호기 운전재개(9일)

○중국 GINSHAN원전 수압시험 종료(6일)

○미국 Oregon 州民투표에서 원전 폐쇄제안을 부결(7일)

○일본 아오모리현, 국내원자력기구(IAEA) 주최 “원자력에너지 관련 지역세미나” 개최(25~26일)

○미국원자력감독위원회, 원전건설을 부활하는 전략계획(NES)을 발표(20일)

<12월>

[국내]

○한·소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14일)

○한·소 과학기술협력센터 양국 공동부담으로 설립키로(22일)

○월성원전2호기 건설공사, 주계약자로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선정, 2차 설비부분 및 시공은 한국중공업(주) 등 국내업체에서(28일)

[해외]

○중국계획위원회, 신에너지 필요성 지적(8일)

○중국 원자력 관련분야 수출 65% 증가(9일)

<한국원산 국제협력부 제공>